

2016년 네 번째 호 (통권 17호)

별마루 010-1171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행복 공동체

성촌의집은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과 권리를 보장하고
가치 있는 삶을 돋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성촌재단
성촌의집
www.sungchon.or.kr

※ 소식지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개인의 동의하에 수록하였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

성촌의집에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며 함께해주신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2017년도 함께하는 우리로 인해 성장하는 성촌의집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

- 이미복 -

2016년 한 해 동안 저희 성촌의집 이용 가족분들과 다양한 활동을 해주신 후원·자원봉사자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또 와주세요 ^~

- 임성철 -

성춘가족이 맛있는 식사, 편안한 생활,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삶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우리 가족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며 자신감을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참 좋으신 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인생을 알아가는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 김용애 -

성촌의집 직원분들을 올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7년에는 저도 더 노력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 김현주 -

성촌의집 모든 분들
2017년에도 사이좋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올해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 김미경 -

많은 일이 이어졌던 한해였습니다. 가족님들과 직원분들, 후원자, 자원봉사자분들과 함께 좋은 추억이 이어졌던 한해를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서로가 기분 좋은 일들과 행복이 풍성한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건강하세요.

- 유성우 -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한다.

자기결정권(自己決定權)

▶ 대한민국 헌법상의 권리로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 없이 일정한 사적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 권리

삶은 선택의 연속이란 말이 있다. 먹고 싶은 음식, 입고 싶은 옷, 하고 싶은 운동, 보고 싶은 영화, 하고 싶은 직업 등 우리는 살아가면서 필요하거나, 하고 싶거나,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택을 한다.

그렇다면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선택사항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야 나에게 맞는, 나에게 어울리는, 나에게 필요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성촌의집은 이용자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계획하고 진행한다. 그리고 이용자는 자신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선택한다.

그 전에 아주 중요한 과정이 있다.

첫 번째! '이용자 만족도 및 욕구 조사'

진행했던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 시 만족했거나 불만족스러운 점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해 점검한다. 그리고 이용자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 이용자가 원하는 질 높은 프로그램과 서비스로 발전해 갈 수 있다.

두 번째! '사업설명회'

이용자 만족도 및 욕구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계획한 후 해당 사업에 대해 이용자에게 설명회를 진행한다.

“직업생활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취업을 연계합니다.”, “건강한 신체를 만들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운동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시게 되면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아 멋쟁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야기 위주의 설명이 아닌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 및 동영상, 실제 물품, 체험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을 진행한다. 그리고 이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사업을 선택한다.

해당 사업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존중하기 위해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

누군가가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나를 위한, 나의 삶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 조명규 사회복지사



함께하는 꽃밭골 행복공동체 THE 사랑 THE 나눔 바자회



2016년 10월 6일(목) 사회복지법인 성촌재단에서 「법인 65주년 맞이 산 하시설(성촌의집, 우리들의집, 굿프랜드) 자립환경구축」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나눔의 결실을 통해 마련된 바자회 수익금은 계획된 목적에 맞고 투명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바자회를 찾아주시고, 자원봉사 및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초대장

(INVITATION CARD)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은 올해 어떻게 보내셨나요?

많이 웃고 즐거운 날도 있었고, 때론 힘들고 벼거운 날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성촌의집은 2016년을 마무리하는 끝자락,
별마을 가족과 직원이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더불어, 별마을 가족들과 인연을 맺은 분들 모두와
더 화목해지고 정겨운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일시 : 2016년 12월 08일 목요일 오후 5시 장소 : 성촌의집 본관

내용 : 별마을 가족 모두가 생각을 모아 올해 솜씨를 뽐낸 작품 전시와 공연

별마을 가족의 2016년을 되돌아보며 서로의 수고를 격려하고
2017년을 기약하기 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석으로 자리가 더욱 빛이 날 것입니다.

별마을 우체통

심폐소생술 수료증을 보며

심장이 정지하여 4분이 지나면 뇌손상이 시작되고, 10분이 지나면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지만 1~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생존율은 50% 가 되고 1분 이내로 실시하면 무려 생존율이 97%가 됩니다. 응급상황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내 가족, 친구, 누구한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때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촌의집 직원은 대한적십자 인천지사 후원으로 4시간의 심폐소생술 교육과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수료증을 보니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구나 하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응급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심폐소생술!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평소에 시행 방법에 대해 알아두셔야 한답니다.

◆ 박명숙 간호사



후원을 통해 정을 함께 나누어주신 감사한 분들께

안녕하세요, 소식지와 함께 보낸 엽서는 잘 받으셨는지요?

여러분은 '성촌의집'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장애인의 날'에 이어 다시 한 번 별마을 가족들이 성촌의집과 우리 동네에 대한 생각을 나누었어요.

별마을 가족들이 집으로 살고 있는 성촌의집 풍경 스케치에 자기만의 색깔을 칠하며 내가 바라는, 내가 생각하는 성촌의집을 표현했지요.

그 중 고르고 골라 별마을 가족들의 색깔을 함께 나누고자 엽서를 만들었어요.

엽서는 나눔을 실천해주신 분들의 후원금으로 만들어졌어요.

엽서를 통해 성촌의집과의 인연을 다시 한 번 추억하셨으면 해요.

별이 총총, 웃음 짓는 하루 보내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 최새롬 사회복지사



성촌의집 홈페이지 새롭게 탄생

성촌의집 가족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소식들이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www.sungchon.or.kr>



별마을그림일기



이제 세탁기는 내가 직접 돌릴 수 있다. 이용자 회의에서 우리가 스스로 세탁기를 돌려보기로 했는데, 처음에는 못할 것 같고 어렵게 생각했었다. 그런데 몇 번 해보니까 나도 할 수 있었다. 내가 직접 하는 게 뿌듯하기도 하고 좋다. 더구나 빨래 후 깨끗해진 옷을 보면 내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것 같다.



오빠, 동생들과 함께 롯데월드에 다녀왔다. 다들 무섭다고 하는 빨리 달리는 놀이기구도,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놀이기구도 나는 조금 무섭기도 했지만 재미있게 탔다. 맛있는 것도 먹고 사진도 많이 찍어보고 정말 재미있는 하루였다! 롯데월드에 또 갔으면 좋겠다.



은행에 유통을 뽑으러 갔다. 은행원 옆에 적금통장에 대한 광고판이 있었다.

“이게 뭐예요?”라고 물어보니 은행원이 친절하게 설명해줘서 적금통장에 대해서 이해가 쏙쏙 잘됐다. 고민 끝에 1년짜리 적금통장을 만들기로 했다. 적금이 끝나고 나올 이자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다. 적금으로 어떤 것을 할지 정하지는 않았지만 모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다.



형님네 집에 갔다. 형님과 악수도 하고 포옹도 했다. 집안 거실에 있는 부모님 모습이 담긴 가족사진도 보고 조카와 인사도 나누었다. 소파에 누워 한참동안 가족사진을 보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그 후 누나네 음식점에서 가서 내가 좋아하는 순두부찌개를 먹었다. 헤어지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나중에 또 놀러오라는 형님과 누나의 얘기를 듣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편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좌충! 우돌! 지역사회적응기

혼자서도 갈 수 있어요!



성촌의집 가족들은 직원의 이동 지원을 통해 공방 동아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가족들은 앞으로 공방을 계속 다닐 생각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가족들 스스로도 공방에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겼다.

“도자기 공방에 직원 없이도 갈 수 있겠어요?”

“네. 도자기 공방 길 알아요!” “혼자 가볼 수 있어요!”

당당한 대답을 믿고 다음 활동부터는 공방까지 스스로 가보기로 했다.

“다녀올게요!” 하며 씩씩하게 떠나고 잘 갔을 것이라고 믿었던 때에 공방에서 가족들이 오지 않았다는 전화가 왔다. 놀란 마음에 찾아보던 중 정문 앞에서 서성이는 가족들을 보았다. 가족들에게 가지 않았던 이유를 물어보았다.

“직원이 당연히 오는 줄 알고 기다렸어요.”, “안 와서 그냥 기다렸어요.”

작은 헤프닝이 있었지만 스스로 갈 수 있었다. 길도 알고 있고 아는 이웃들도 많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가는 더 많은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성촌의집 가족들은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은행 두 곳을 이용합니다. 꾸준히 은행을 이용한 결과 직원의 도움이 없어도 혼자서 은행에 가서 돈을 예금하거나 출금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 오늘 용돈 뽑으러 가요.” “네. 다녀오세요.”

보통 30분 정도면 돌아오는데 1시간이 되어도 오지 않아 은행으로 찾아갔습니다. 은행에 가보니 의자에 앉아서 전표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어 이상하게 여겨 물어보았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기다리시는 중이에요?”

“아니오. 사람 없어요. 은행원 누나가 나를 안불리요.”

“번호표는 뽑으셨어요?” “아! 맞다!”

잊고 있었던 것을 찾은 것 같은 표정으로 뒤로 가서 번호표를 뽑는 모습에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번호표 없는 1시간의 기다림도 그에게는 은행에 혼자서 왔다는 자신감으로 견딜 수 있었나 봅니다. 용돈을 뽑고 은행을 나온 가족님의 모습엔 기다림에 대한 불평이 아닌 즐거움으로 가득하였다.

은행 번호표



분리수거 그게 뭐 어렵나?



어느 집이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버리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렇게 성촌의집에도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플라스틱, 캔, 종이, 병 등으로 구분하여 버릴 수 있습니다. 너무 종류가 많았던 탓일까요? 처음에는 분리수거함에 구분하지 않고 모든 쓰레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2주일 정도가 지났을까요? 분리수거에 대해서 모르는 가족님들이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가족님들과 직원들의 모습을 보고 깨달으셨나 봅니다. 점차적으로 플라스틱별로 모이고, 캔별로 모이고 분리수거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분리수거 하고 계세요?”, “네”

분리수거함 비닐봉지에 넣어져 있는 플라스틱병과 자신이 들고 있는 플라스틱병을 확인하고 같은 곳에 자연스럽게 넣는 모습은 일상 그 자체였습니다.

“같이의 가치”를 찾아서

通&UP 성촌의집 충북 단양으로 go~~~~

2016년 성촌의집 전체직원연수

같이 : 여렷이 서로 더불어

가치 : 좋은과 나쁨, 옳음과 그름, 아름다움과 추함 등에 대한 사람들의 신념과 감정의 체계



Q

장애인거주시설 성촌의집의 직원으로 같이 일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장애인거주시설 성촌의집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며 가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2017년을 어떻게 살아가는 하는 것인가?

사람을 대하는 서비스를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서비스를 받는 이들에게 우리의 노력과 정성 그리고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훈자가는 길은 빨리 갈 수 있지만 같이 가기위해서는 더디 가더라도 옆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가는 동료와 호흡을 맞출 수 있어야 같이 가는 길이 조금은 쉽지 않을까?

2016년 성촌의집의 직원연수의 의미는 그런 것이었다.

신입직원들도 많이 들어온 상태, 어쩌면 많은 일들로 지쳐있는 상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했으나 알지 못함으로 인해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 다른 부서에서는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되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 이러한 상태들로 인해 우리는 소통하지 못하는 걸림돌에 서로 힘 들어 했다.

이러한 상태들을 자연스럽게 없애야 2017년을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연수를 떠났다.

1박 2일~ 2조로 나눠서 진행된 연수였고, 직원들과 호흡하고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의미있는 시간들이었다.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고, 차 한잔의 여유를 즐기고, 우리의 속내를 털어놓고, 책을 선정하여 읽으면서 좋은지원이란 무엇인가 고민하며... 2016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2017년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다짐의 시간이었다. 각 조별로 부여된 ‘같이의 가치’의 미션을 수행해 가며 우리는 더 친해졌고, 서로 이해하는 시간을 갖기위한 노력들을 했으며, 성촌의집의 직원으로써 함께 한다는것에 감사한 시간을 가졌다.

우리의 연수는

[2017년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감동복지' 通 & UP 성촌의집]을 위함이었다.

별마을 메모리즈(그룹여행)

여행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두근두근한다. 새로운 것,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도 있지만 기대감 또한 적지 않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여행을 가는 이유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 일상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또는 복잡한 마음이 들 때 생각 정리를 위해 우리는 여행을 떠난다. 그리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라는 말이 있듯이 여행을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을 충전하고 일상으로 복귀하여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2016년에도 어김없이 별마을 가족들도 여행을 다녀왔다. 하지만 이번 여행은 다르다. 사전에 준비된 여행지로 별마을 모든 가족이 다녀오는 것이 아닌 여행지, 시간, 교통편, 식사 등 여행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개개인이 직접 선택하여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여행을 다녀왔다.

강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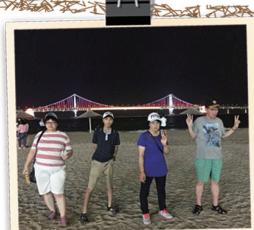
김해



대자연의 감동, 여행의 즐거움을 느끼고 싶다면... 강원도를 추천합니다. 낙산사, 설악산, 드넓은 동해바다... 힘난한 지형, 비바람...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이동이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도우며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예전과 많이 변했지만 고향의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 곳... 김수로 왕릉, 김해테마파크, 김해한옥체험관, 낙동강 레일파크, 와인동굴... 옛 것과 새로운 것이 조화가 이루어지는 곳... '김해'. 정이 넘치고 큰 행복을 느낀 여행이었답니다.

부산



우리는 편한 것을 거부한다!

전철 타고, 기차 타고, 시내버스 타고, 걷고, 걷고, 또 걷고.

몸은 힘들어도 우리가 가고 싶고, 먹고 싶은 곳을 직접 찾는 재미로 잊지 못할 부산 여행을 했어요.

제주도



제주도의 푸른 해변과 초원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치를 마음껏 누리고 왔어요. 삼계탕, 흑돼지, 칼국수 등 제주도의 맛있는 음식은 덤으로~!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되어주며 기억에 오랫동안 남을 멋진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여행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것 등 여행에 대한 생각을 전마다 다르다.

이번 그룹여행은 전마다 다른 별마을 가족들의 생각과 선택이 존중되고 반영된 것이다.

그렇기에 별마을 가족들은 이번 여행에 대한 행복한 추억을 한 보따리 만들 수 있었습니.

동시에 아쉬움도 있었던 여행이라 다음에는 더 풍성하고 알찬 여행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별마을 가족들의 여행은 꾸~욱 이어집니다. 맑은 수원 부탁드립니다~^^

♥ 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 찾아가마 | 2016년 10월 15일(토)

보고도 믿기지 않는 신기한 마술 공연!! 성촌의집 가족에게 신기하고도 재미난 시간을 선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신기!! 방기!! 하네요~^^



♥ 상정중학교 우리들봉사단 | 2016년 10월 16일(일)

모의장터를 열어 물건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금전관리 능력을 향상 할 수 있는 교육 진행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동행



♥ 별 | 2016년 11월 06일(일)

성촌의집 가족들과 사진이 무엇이고, 촬영 방법 등 전반적인 사진촬영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촬영하며 뜻 깊은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원봉사 신청

자원봉사 신청접수는 전화 · 홈페이지 · 방문 · VMS 등으로 해주세요~

- 처음 오신 봉사자는 '봉사활동신청서'를 꼭!!! 작성해주세요.
그리고 활동이 끝난 후에는 '활동일지'를 작성해야지만 봉사활동이 인정됩니다.
- VMS(www.vms.or.kr)에 가입하셔야 '활동확인서'가 발급됩니다.
- 시설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성촌의집 소개와 봉사활동을 알려드립니다.
-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합니다.

* Painted by 유성우 가족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행복공동체



학습
(수학, 영어 등)



운동
(배드민턴, 탁구 등)



IT교육
(컴퓨터, 인터넷 등)



여가활동
(춤, 노래 등)

기다리아저씨는 지역사회에서
뒤에서 육육히 성촌의집에
도움을 주시는 곳을 찾아가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남로 15

♥ 동암신협

동암신협에게 '성촌의집'이란?

조합원님들을 우선하며 그들의 상황에서 바라보려 노력하지만 때로는 욕하는 마음과 속상한 심정으로 조합원님들을 대하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성촌의집 직원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이용자와 함께하는 모습을 볼 때 사랑과 섬김의 자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 직원들의 따뜻한 사랑과 섬김은 장애인이 사회에 한 발짝 더 친숙하게 나아가게끔 하는 원동력이 되는 듯합니다.

성촌의집 직원들을 기억하며 모든 조합원님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더 나아가 우리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동암신협이 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촌의집에 하고 싶은 말은?

함께하는 마음보다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는 시대에 성촌의집은 따듯한 온정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순수한 이용자와 그들과 함께하는 직원들을 바라보며 배울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성촌의집과 계속 함께하며 서로 도와주고 의지하는 관계를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남로 13번길 8

♥ 차우차이짬뽕

차우차이짬뽕에게 '성촌의집'이란?

우리 동네에서 공존하며 함께 사는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에 남는 성촌의집(이용자)과의 추억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성촌의집 가족이 기억이 많이 납니다. 최근 까지도 친구와 함께 오셔서 저녁식사를 하고 가시는데 항상 맛있게 잘 먹었다고 얘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촌의집에 하고 싶은 말은?

지금과 같이 변함없이 이웃으로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습관~ 행복한 나눔^^

피겨선수 김연아가 필리핀 구호기금으로 10만달러를 기부하고 배우 하지원이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1천권의 책을 기증하였으며 배우 한효주가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영화자막해설 녹음을 하는 등 유명인들의 나눔 소식이 연일화제입니다.

우리들도 유명인들처럼 나눔 실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은 입었던 옷은 어디다 보관하세요? 빨기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깨끗한 옷과 함께 보관하는 것도 애매하고... 성촌의집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생깁니다.

성촌의집 가족들이 옷걸이를 통해 옷을 잘 관리하여 패션스타일을 지켜주세요! 외투를 걸 수 있는 스탠딩 옷걸이를 찾습니다.

물품후원 시 해당되는 가격에 대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고 이는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됩니다. 좋은 일도 하고 연말에는 후원물품에 대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일식이죠, 일거양득의 똑똑한 재테크 누려보세요~~



튼튼하고 멋진 스탠드 옷걸이 12대!!

별마을 이웃사촌(사랑나눔 봉사단)



사랑나눔 봉사단은...

구성원 : 총 25명(회장 이종서, 총무 김지연) 성촌의집과의 인연 : 2015년 02월 활동시간 : 매월 2째 주 토요일 활동내용 : 청소 및 석식 봉사



♥ 성촌의집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한지가 벌써 20개월이라는 시간이 됐습니다. 처음 성촌의집 이용자를 만났을 때부터 항상 먼저 다가와서 웃어주며 반겨주었기에 사랑나눔 봉사단은 내 가족처럼 편안하고 친근한 느낌이 들어 지금까지도 보람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봉사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항상 새롭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단 회장으로서 사랑나눔 봉사단 회원 모두 서로 앞장서서 묵묵히 자원봉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 일일이 고맙다는 인사 드려야 하오나 글로서 대신 한다는 것이 웬지 부끄럽네요. 이 자리를 빌어 회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나눔 봉사단은 언제나 한 결 같이 성촌의집 이용자분들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다정다감한 모습으로 항상 다가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 후원자 명단 (2016.09.01-2016.11.20)

+ 비지정후원금

개인 : 고종원, 김경진, 김덕진(건강길약국), 김수진, 김양석, 김영준, 임미정, 박현철, 김현보, 박미정, 박점숙, 신진자, 신자남, 유계월, 유은율, 유은찬, 유암식, 윤창호, 이덕재, 이향란, 임명선, 장아름, 조성란, 정민영

단체 : 교촌에프앤비, 인천중앙교회, 오내친구성폭력상담소, 아프로파이낸셜 구월지점, 익산유업, 푸드마스, 창리쉼터매점, 흥성떡집

CMS : 김인수, 김현수, 김현경, 박미정, 변문수, 소형순, 손대원, 이은주(부평우체국), 이은주(성촌의집), 이구형, 윤유석, 정찬식, 정민호, 정웅택, 조광매, 조근태, 조성숙, 조성욱, 정금자

+ 지정후원금

이용자결연후원금 : 유정운, 이은주, 임미정

+ 후원물품

개인 : 김수진(행가)

단체 : 부평감리교회(쌀), 동암신용협동조합(선물세트), 사랑나눔봉사단(식식식재료), 시흥현대모터스(차량수리, 점검), 크롬(빵류), 깨레몽케이크산삼점(케이크), 파리바게뜨간식오거리역점(빵류), 라성약국(구충제), 차부떡집(떡), 흥성떡집(떡), 한국세탁업중앙회인천지부(의복수선), 한국희망집짓기태양봉사단(중식 식재료), 현해어뉴스(헤어디자인)

+ 후원모금함 현황

- 부평우체국(동암우체국, 부평6동우체국, 부평공단우체국, 부평대로우체국, 부평현대아파트우체국, 북인천우체국, 산곡2동우체국, 인천갈산동우체국, 인천부개동우체국, 인천삼산동우체국)
- 24시콩나물국밥, 건강길약국, 라성약국, 벤엘약국, 부성해물탕, 석바위어린이책, 시흥현대모터스, 이천쌀밥설악추어탕, 차우차이, 현해어뉴스, 촌집보쌈, 동암중앙치과

▣ 후원금 수입 및 사용보고

(2016.09.01-2016.11.20)

세입		세출	
지정후원금	131,500	여비	41,800
비지정후원	7,484,780	수용비 및 수수료	1,502,282
집수입	24,128	공공요금	70,380
전년도이월금	36,500,363	기타후생경비	315,000
		제세공과금	540,000
		기타운영비	2,679,180
		시설장비유지비	9,862,800
		의료재활사업비	96,000
		사회심리재활사업비	5,574,256
		영양관리사업비	316,000
		인권사업비	450,000
		이월금	22,693,073
합계	44,140,771	합계	44,140,771

▣ 자원봉사자 명단 (2016.09.01-2016.11.20)

개인

오희주, 노현우, 강민재, 김윤지, 정다인, 김다정, 이지원, 정수연, 안종성, 조나단, 서아현, 유미숙, 성홍규

단체

사랑나눔봉사단 : 석식봉사

이종서 단장, 김연숙, 진학일, 모윤숙, 정연화, 이빛나, 이다민, 윤하늘, 김지현, 박남숙, 홍경순, 이승리, 이판기, 서금자, 오경택, 김순옥, 김민상

아이디나눔봉사단 : 시설 실내/외 소독봉사

허진, 심동민, 이종우, 정희현, 이다영, 이민영, 최세진, 최세은, 최효준, 선준철, 최유빈, 김동현, 김향중, 박선미, 박가희, 안연숙

상정중 우리들봉사단: 음식만들기 · 이용자프로그램 지원

신미옥 단장, 나승진, 박상은, 안형진, 정수연, 김이수, 유나경, 김효주, 임정연, 김지수, 김지우, 강건주, 이은서, 김형진, 이지원, 김민교, 강건희, 이윤진, 윤수현, 조영순, 최제옥, 김호연, 정미자, 이인숙, 김영재, 김경준, 박미영, 임자영

동그라미봉사단 : 이용자프로그램 지원

오현주 회장, 김오분, 임충휴, 정나나, 이재웅, 김숙영, 나태현, 이해원, 김인선, 최계한, 장경미, 문희주

부평통우회

최명아, 임영숙, 지인애, 박규희, 윤경옥, 윤소은, 성순희, 이한복, 허정애

한국희망집짓기운동본부 태양봉사단 : 중식봉사

이명식 회장, 이영호, 김춘숙, 김정은, 황세동, 김영분, 나영분, 김점엽, 김미정, 신연섭

부평지기 : 이용자프로그램 지원

김철 부단장, 이수일, 정연호, 박종화, 황병호, 조재윤, 김지훈

부평구 자원봉사 단체 협의회 : 시설물 유지관리

남명숙 회장, 강원희, 김나미, 김명수, 김미숙, 김병락, 김병하, 김영미, 김예은, 김종숙, 남형우, 손정희, 심병길, 이동철, 이상기, 이영근, 이인자, 정윤희

DK도시개발 봉사단: 시설 환경개선 지원

김란은, 김석현, 김옥태, 김원석, 김정태, 김형남, 김효종, 나봉균, 이나라, 이성현, 이재봉, 이태현, 임진욱, 정찬영, 조재만, 최은희

행복은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데 있습니다.

성촌의집 이용장애인의 가치 있는 삶을 함께 만들어 주세요!

♥ CMS(Cash Management Service)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정기 후원신청서 작성 통해
금융결제원의 관리 하에 정해진 날짜에 후원자님의 계좌
에서 성촌의집 계좌로 약정금액이 이체되는 제도

◀ 후원신청방법

후원신청서 작성, 전화, 메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성함, 주소, 주민번호, 계좌번호, 후원금액, 출금날짜)

♥ 자동이체후원

후원계좌로 직접 입금 (예금주:성촌의집)

신용협동조합 131-009-995822

국민은행 660401-01-641623

중소기업은행 108-093168-04-011

농협은행 301-0072-5929-41

♥ 모금함

성촌의집 모금함에 후원금을 모금

◀ 모금함 설치방법

- 모금함을 놓을 작은 공간 마련
- 손님들에게 성촌모금함을 홍보
- 모금함이 다 모이면 성촌의집으로 연락

♥ 해피빈콩 (클릭으로 참여하기)

후원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온라인에서

무료로 참여하여 기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

naver에서 콩배너를 클릭하고

콩(1개=100원)을 받아

<http://happylog.naver.com/sungchon.do>,

네이버 해피빈에 "성촌의집"으로 검색 후

모금함에 콩 기부

♥ 물품 후원

일상용품 (생활용품, 여성용품)

사무용품 (A4용지, 파일, 각종 문서류)

의료용품 (의약품 및 헬체어, 보조기구)

교육기자재 (학습지원을 위한 물품)

♥ 결연후원

성촌의집 이용장애인과 1:1 후원으로
관계형성함으로써 결연이용자의 자립지원금,
일상용품 구입비, 의료비 등으로 사용



BUS/버스

좌석버스 : 동암북부역 하자 103번, 약사사 입구 하차 111번

마을버스 : 531, 533, 535-1, 536, 537, 538(남부역하차)

시내버스 : 2, 30, 34, 45번(심정2동주민센터 입구, 보훈회관 하차)

SUBWAY/지하철

국철 : 동암남부역 1번출구 하차

인천선 : 간석오거리 9번 출구,

부평삼거리역 3번출구 하차



별마을이야기 2016년 네 번째 호 (통권17호)

발행처 | 성촌의집 | 발행인 | 이은주 편집인 | 이향란 편집위원 | 권소진, 김기철, 유성우, 조명규

주소 | 인천시 부평구 경인로 701번길 26 (인천시 부평구 십정2동 586-2)

전화 | 032)422-0573 팩스 | 032)433-2572

홈페이지 | www.sungchon.or.kr 디자인 | 혜성디자인 032)508-2912

※ 후원하신 후원금품은 법인세법 제24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